## APPENDIX

# 문자열	
>> s = 'Hello'	MATLAB에서 문자열은 ' '로 둘러 나타낸다.
	변수로 대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s =	
Hello	
>> size(s)	문자열을 저장한 변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행 벡터인 것을 알 수 있다. 'Hello'가 5개의
ans =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 열의 크기가 5이다.
1 5	
>> double(s)	함수 double을 사용하면 변수의 type을 실수로 바꿀 수 있으며, 문자열 변수를 입력하면 ASCII
ans =	코드로 바꾸어준다.
72 101 108 108 111	
>> char(ans)	함수 char는 double과 반대로 변수의 type을
	문자열로 바꾸어주며, 자연수의 ASCII 코드에
ans =	해당하는 문자로 바꾸어준다.
Hello	
>> w = 'World'	
w =   World	
World	
>> [s w]	둘 이상의 문자열을 합치고 싶을 경우, 벡터를
ons –	합치는 것과 동일하게 []으로 감싸면 된다.
ans = HelloWorld	
Tichovoria	
>> [s ' ' w]	문자열을 합칠 때 사이에 빈 공간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띄어쓰기가 필요할 경우
ans =	''를 넣어주어야 한다.
Hello World	
>> size(ans)	이 벡터의 길이를 확인해보면 11로, ''도

ans = 1 11 >> n = 2;>> [s n w] ans = HelloWorld >> [s num2str(n) w] ans = Hello2World >> z = 0.5;>> [s num2str(z) w] ans = Hello0.5World >> x = 3; y = 5;>> eval('x+y') ans = 8 >> eval('z = x+y')z =8

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2는 문자열이 아닌 숫자이다. 이 변수를 그대로 문자열과 섞어서 합칠 경우, ASCII 코드로 변환이 된다. Hello와 World 사이의 ㄱ자 문자는 ASCII 코드의 2번 문자이다.

변수의 숫자를 문자열과 섞어서 나타내고 싶을 경우, 함수 num2str을 사용한다. 이 함수는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해준다. 반대의 경우인 str2num이라는 함수도 있다.

함수 num2str은 실수나 복소수도 문자열로 바꾸어준다. 상수 pi와 같은 무리수의 경우, 유효숫자 5개까지 나타낸다.

함수 eval은 입력받은 문자열을 command window에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시켜준다. 평상시에는 쓸 일이 별로 없으나, 후에 GUI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비슷한 모양의 코드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경우에도 반복문 문법과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다.

출력 변수를 지정할 경우, 입력 받은 문자열의 결과를 출력 변수에 저장한다.

# Symbolic Math Toolbox

>> z = eval('x+y')

8

z =

```
>> syms x real
>> y = x + x
y =
2*x
>> y = \sin(x);
\Rightarrow h = subs(y, x, pi/2)
h =
      1
>> syms a b t real
>> y = \cos(a*t + b);
>> diff(y)
ans =
-a*sin(b + a*t)
>> diff(y, b)
ans =
-\sin(b + a*t)
>> y = \sin(2*x);
>> int(y)
ans =
\sin(x)^2 - 1/2
>> int(y, 0, pi/2)
ans =
1
>> f = '\cos(2*x) + \sin(x) = 1';
>> solve(f)
ans =
```

Symbolic math 기능은 컴퓨터로 사람과 같은 대수해석적 연산을 하기 위해 개발된 toolbox이다. 즉, x + x를 연산할 때 x의 값과 x의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2x라고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Symbolic math toolbox의 대부분의 함수는 변수가 symbolic math용으로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함수 subs는 대입연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인자는 수식, 두 번째 인자는 원래 문자, 세 번째 인자는 대체할 식, 문자, 또는 숫자를 넣으면 두 번째 인자의 문자를 세 번째 인자의 입력으로 대체하여 연산한다.

Symbolic math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석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즉, 미분을 할 때 수치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 자체를 해석하여 도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적분할 때도, 수치적 방식 대신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정적분을 구한다.

미분의 경우, diff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식만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x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벳을 선정하여 그 문자에 대하여 미분한다. 또는, 두 번째 인자에 미분할 문자를 정할 수 있다.

적분도 미분과 비슷하다. 식만 입력할 경우 부정적분을 수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넣을 경우 그 문자에 대하여 부정적분을 행한다. 세 번째 인자까지 입력하면 정적분으로 인식하여 두 번째 인자부터 세 번째 인자까지의 범위를 적분하며, 네 번째 인자까지 넣으면 두 번째 인자에 대하여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자의 범위까지 정적분을 행한다.

Symbolic math의 유용한 함수로, solve와 dsolve가 있다. 함수 solve는 문자열로 입력 0
pi/6
(5\*pi)/6

>> dsolve('D2y + 3\*Dy + 2\*y = 0', 'y(0)=1', 'Dy(0)=0')

ans =
2/exp(t) - 1/exp(2\*t)

>> pretty(ans)

2
1
-----

exp(t) exp(2 t)

 $2/\exp(t) - 1/\exp(2*t)$ 

>> simplify(ans)

ans =

반은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며, dsolve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준다. 함수 solve는 필요할 경우, 식 외에 해를 구할 문자를 입력해주어야 하며, dsolve는 초기 조건을 입력해구어야 한다.

문자로 출력된 식에 pretty 함수를 사용하면 일렬로 나열된 식을 2차원으로 표현하여 한결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

매우 복잡한 식이 있을 경우, simplify 함수를 통해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함수 simple은 다양한 방식으로 식을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정리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